

리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스리랑카 국제문제 전문가:

SCO 발전과 성장은 그 흡인력과 생명력 보여줘

8월 22일, 국무원 총리 리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하여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보충교환판매 정책 실행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스포츠 소비 잠재력을 격발시켜 스포츠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연구했으며 <3북>공정 총체적 계획을 심의, 통과하고 해양 어선 안전생산 전문정비 사업을 포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보충교환판매 정책은 투자 안정, 소비 확대, 전환 추진, 민생복지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 시행 상황에 대해 참담계 총화하고 평가하는 토대에서 통합 조정을 강화하고 실시 기제를 보완하며 내수 확대에 대한 추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북'공정은 국가의 중대한 전략으로 우리 나라 생태안전, 강국 건설, 중화민족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계된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증강하고 공정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나라 북방의 생태안전 장벽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선의 안전생산은 광범한 어민, 선주, 선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해양 어선 안전생산 전문정비사업의 고품질 발전과 결부시키고 낡은 어선의 개조 승격을 지지하며 어항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어민의 안전소양을 향상시키며 인공지능 등 기술을 잘 리용하여 해양 어선 안전감독관리 전 사슬 강화와 본질적인 안전 수준의 전 요소 승격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소비를 발전시키는 것은 내수 확대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스포츠 제품 공급을 늘이고 스포츠 경기 활동을 풍부하게 하며 스포츠 용품의 승격을 추진하고 산업 요소의 지원을 강화하며 봉사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포츠산업의 성장점을 육성함으로써 현대 스포츠산업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스포츠 소비 수요를 격발시키고 스포츠 소비 장면을 확대하며 각지에서 스포츠 소비 활동을 개최하도록 격려하고 소비 헤민 조치를 실시하여 대중들의 소비 승격 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한다. 시장의 힘을 동원하는 데 중시를 돌려 스포츠산업 발전과 소비 규모를 확대하고 스포츠 경영 주체의 활력을 높이며 스포츠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선의 안전생산은 광범한 어민, 선주, 선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해양 어선 안전생산 전문정비사업의 고품질 발전과 결부시키고 낡은 어선의 개조 승격을 지지하며 어항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어민의 안전소양을 향상시키며 인공지능 등 기술을 잘 리용하여 해양 어선 안전감독관리 전 사슬 강화와 본질적인 안전 수준의 전 요소 승격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선의 안전생산은 광범한 어민, 선주, 선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해양 어선 안전생산 전문정비사업의 고품질 발전과 결부시키고 낡은 어선의 개조 승격을 지지하며 어항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어민의 안전소양을 향상시키며 인공지능 등 기술을 잘 리용하여 해양 어선 안전감독관리 전 사슬 강화와 본질적인 안전 수준의 전 요소 승격을 실현해야 한다.

스리랑카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이며 스리랑카 '일대일로'기구 창립 리사인 야시루 라나라자는 최근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2001년에 설립된 상해협력기구(SCO)가 지난 24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온 것은 그 포용성뿐만 아니라 흡인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나라자는 "SCO는 오늘날 세계에서 아우르는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성 국제기구"라며 "평등한 대화와 단결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국가들이 테러주의를 저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나라자는 "SCO는 오늘날 세계에서 아우르는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성 국제기구"라며 "평등한 대화와 단결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국가들이 테러주의를 저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나라자는 "SCO는 오늘날 세계에서 아우르는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성 국제기구"라며 "평등한 대화와 단결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국가들이 테러주의를 저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주한미군기지 토지소유권에 눈독



8월 25일, 트럼프(좌2)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재명을 환영하고 있다. / 신화넷

8월 2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방문한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조선반도 정세, 미한 제조업 협력 등 의제를 논의했다. 또한 한국측이 주한미군기지 토지소유권을 미군에 이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들이 김정은을 올해 만날 계획인지 명년에 만날 계획인지 묻자 트럼프는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김정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가 이끄는 국가의 잠재력과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한 정상회담 개최 단계를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주한미군 '대형 군사기지' 일부의 토지소유권을 미군측에 이전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하면 '임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조선반도에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재명과 함께 대조선 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한 경제 관계에서 트럼프는 7월에 체결된 미한 무역협정에 대해 한국측이 "재협상하라 하는데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아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항상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날 앞서 언젠가 다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측은 한국에서 선박 일부를 구매할 계획이며 동시에 한국 조선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 로동력을 채용해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신화넷

관례 깬 선방일 후방미... 이재명이 방출한 신호는?

8월 23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회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이 6월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한 첫 해외 방문이다. 그는 24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한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후 우선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호'를 '굴욕 외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이재명의 대일본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6월, 캐나다로 출국하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은 이시바 시게루와 첫 회담을 가졌으며 갈등을 관리 통제하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역설했다.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요시다 테루는 한국과 일본이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면 미국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양국이 경제 및 안보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가들은 력사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우익 보수 세력이 줄곧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일본 정계는 더한층 우경화되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은 력사 문제에 대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한때 일본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이재명이 관례를 깨고 먼저 일본을 방문한 배경에는 그가 야당 지도자에서 국가 정상으로 변신한 내정 요인뿐만 아니라 관세와 안전 문제에서의 미국의 가압에 일본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필요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간의 력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앞으로 양국 관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일, 이재명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 양측은 력사 문제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호혜적인 방법을 찾아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다. 그는 심지어 과거에 강력히 반대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의에 대해서도 "이는 국가간의 약속이며 (협의가) 뒤집혀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의 태도 변화에 대해 야당일 때는 '투쟁'이 필요했지만 이제 집권하면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일본측에서도 최근 일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쁨을 갖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는 23일 이재명의 첫 일본 방문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표했다. 일본은 이재명의 방문을 맞이한 후 곧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방문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 매체는 일련의 외교활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이시바 시게루의 집권에 가산점이 되어 국회 중의원-참의원 랭원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이후 집권당인 자민당내에서 그에게 퇴진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건영은 참정당이 급부상한 주요 리유중 하나는 이전에 자민당을 지지했던 일부 극우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에 위기를 느껴 이 부분의 표를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족주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일본사회의 력사적 인식이 더욱 큰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다시 한국 민심을 자극하여 력사 문제에 대한 양측의 논쟁이 재현될 수 있다. / 신화넷

◆ 일본에 대한 태도 전환

이재명과 이시바 시게루는 23일 회담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및 인공지능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의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었다. 회담후 발표된 공동문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공동문서를 발표한 것으로 된다.

◆ 함께 미국의 가압에 대한

한국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24일 이번 회담에 대해 "양측의 소규모 회담 시간이 예정 계획을 크게 초과했는데 이는 두 정상 모두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했다. 이재명은 과거사 등 문제에 대해 일본을 여러차례 비판했으며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을 미국으로 선택하는 것은 관례이다. 이재명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먼저 일본을 방문한 첫 한국 대통령이다. AP 통신은 현재 일본과 한국이 모두 미국의 압력에 직면해있다면 이재명이 먼저 일본을 방문한 다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회담을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력사적 원한 해결하기 어려워

이재명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의 가장 큰 난제는 력사 문제라고 말했다. 비록 그가 이번 일본 방문에서 력사 문제를 언

朝夕奔梦

富文明和自公平法爱敬诚友善 强主明由等正治国业信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任明兆作